



시민들 얼굴에 담긴 삶의 서사...시대를 기록하다

은암미술관, 석주 박종석 개인전 7월 2일까지
인물화 30여점·미디어 담긴 얼굴 초상 5000점
19·26일 시민 초상 드로잉 프로젝트 진행 관심

전시장은 얼굴 초상으로 가득 채워졌다. 얼굴이 다 다르듯이 삶 또한 다 다르다. 무수하게 많은 얼굴들이 벽면과 바닥에 큐레이팅 됐다. 저마다 수많은 얼굴들이 얼마나 다채로운 세상을 응시하며 살아가고 있을까.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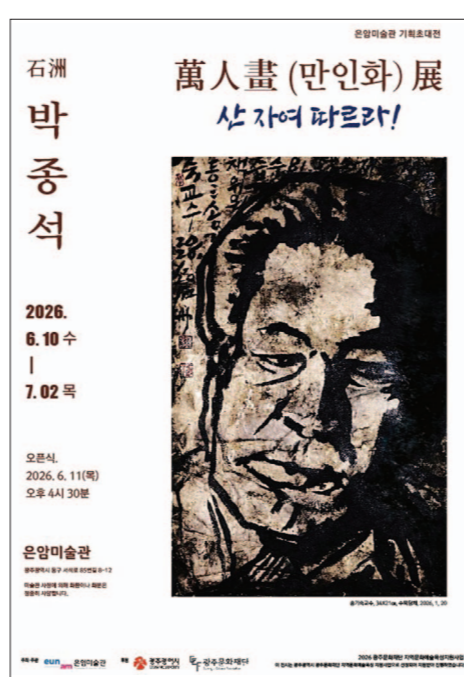
그의 초상 그림에는 삶의 슬픈 쪽에서부터 원혼한 기상에 이르기까지 담벼락 넘어 구수한 아재, 삼촌, 이모 등과 이쁨모를 시민들의 소소한 일상이 그의 화폭에서 또 다른 기억들로 의미를 부여받고 있다. 우리와 또 다른 삶을 사유하고 싶다면 전시장을 방문하기 바란다. 무더위 속 유일한 문화나들이가 될 듯싶다.

작품을 통한 선량한 서민들의 부채의식(負債意識)으로 1980년 5월의 비극을 반추하는 동시에 평범한 시민들로부터 시작된 광주민중항쟁, 그리고 먼 미래까지 빛날 민초들의 의기 등을 화폭에 투영한 얼굴(초상) 전시가 진행된다.

광주 은암미술관(관장 채종기)이 기획초대전으로 마련, 지난 10일 개막해 오는 7월 2일까지 '만인

화展-산 자여 따르라!'는 타이틀로 열린 석주 박종석 작가의 개인전이 그것으로, 수묵담채로 1만여점의 '만인화'를 그려온 작가의 얼굴 그림 진면목을 접할 수 있는 기회로 부족함이 없다. 출품작은 회화(인물화) 30여점과 미디어에 담긴 얼굴 초상 5000점으로, 1층 전시장은 대작 회화와 설치, 2층 전시장은 인물화 얼굴들이 배치됐다. 초상 5000점보다 더 많은 그림들을 전시장에 가져왔지만 모두 다 걸지는 못했다는 후문이다.

타이틀로 차용한 만인화는 70여년에 걸친 삶의 기록이자 우리 시대를 담아낸 거대한 초상화이자 한 예술가의 작업세계를 소개하는 전시를 넘어 사람을 기억하고 삶을 존중하는 의미를 되새기자는 취지다. 이처럼 셀 수 없는 만민의 초상 작업을 펼쳐온 데는 작가의 집안 내력이 상당한 영향을 끼친 것만은 분명하다. 독립투사이자 노동운동가였던 외조부의 후손으로 살아왔기에 시대의 아픔과 삶의 흔적을 사람들의 얼굴 속에 담아내며 자신만의 예술 세계를 구축하는 것은 어쩌면 당연한 일인지



모른다.

거리와 카페, 일상 속에서 마주한 수많은 사람들을 화폭에 옮겨온 작가의 작업은 단순한 인물 묘사가 아니라 이쁨 없이 스쳐 지나가는 존재들에게 기억의 자리를 내어주는 행위로 인식된다. 평범한 사람들의 얼굴을 통해 삶의 온기와 시대의 이야기 기록해온 작가는 오늘날 소비되는 수많은 이미지와 정보를 상기한다. 아울러 시대 상황 때문에 삶과 기억마저 쉽게 잊히고 난다는 것이다. 작가

의 만인화는 이런 망각에 맞서 한 사람 한 사람의 존재를 오래 바라보고 기억하려는 예술적 실천으로 읽힌다.

이번 전시에서는 수천의 얼굴들을 조망할 수 있다. 이는 각기 다른 시간과 장소에서 포착된 삶의 기록들이다. 작가가 한 사람 한 사람을 귀하게 응시하며 남긴 초상들은 개인의 기억을 넘어 우리 사회와 시대를 보여주는 공동의 기록으로 다가온다.

특히 전시 포스터에 사용된 작품은 민주화운동가이자 소설가였던 전남 장흥 출생 송기숙(1935~2021) 전 전남대 교수를 그린 만인화로, 한 시대를 치열하게 살아낸 지식인에 대한 작가의 존경과 기억을 담고 있다. 이는 이쁨있는 인물과 이쁨없는 사람들을 구분하지 않고, 모두를 시대의 주인공으로 기록해 온 만인화 정신을 상징적으로 보여 준다.

작가는 작가노트를 통해 "여사는 수레바퀴처럼 끊임없이 흘러가면서도 오류와 착오를 범하는 경우가 있어 왔다. 이는 권력 탐욕과 친일적 사고의 정저인, 사이비 종교인들의 암적 편향주의와 노예적 야심 근성이 원인이었다. 1980년 5월 18일 이후 광주 시민들은 군부독재 전두환 일당이 국민들을 노예로 취급한 부패권력에 항거해서 투쟁했다. 그로 인해 많은 민주열사들의 희생을 담보로 민주화가 회복됐고 광주 서민들의 희생이 없었다면 현재와 미래가 있었는가. 작가가 만난 일반 서민들의 인물화

소품 1만점이 모아졌다. 따라서 일상적 평범한 기록이지만 과거와 현재, 미래는 하나이자 진행형'이라고 밝혔다.

김준태 시인은 '석주의 '만인화'와 역사적 혹은 현존재(Dasein)의 리얼리즘'이라는 평론글을 통해 "올해 70세 고회를 맞아 지난 24년 동안 그가 추구해온 삶과 미술의 세계를 집중적으로 담아낸 '사람의 얼굴'을 한 자리에 모시게 된 것이다. 지금까지 그의 일련의 작품에서 굳이 '사람'을 중심 테제로 삼은 것은 그의 가족사와 무관하지 않은 것 같다"면서 "그가 천지간에 존재하는 헤아릴 수 없는 유무(有無) 생명체 중에서 특히 '사람' 혹은 인간에 대해 역사적 미학 혹은 철학적 세계관을 갖고 있음에 경야의 말씀을 전하고 싶었다"고 평했다.

전시와 별도로 시민 초상 드로잉 프로젝트 '응시 살롱'이 참여 시민들의 호응 속에 진행되고 있다. 전시 개막 전인 5월 25일 박 작가와 몽골 작가 엘마(Tsevelmaa Nadmidjanlav)가 함께 참여한 초상 드로잉 퍼포먼스가 풀라보로 열린 가운데 지난 12일에 이어 19일과 26일 두 차례 더 예정돼 있다. 12일 열린 시민 초상 드로잉에서는 박 작가가 시민 12명과 소통하면서 얼굴 초상을 작업, 아카이브로 축적했다. 이날 참여한 시민들의 뜨거운 호응이 있었다는 후문이다.

고선주 기자 rainidea@gwangnam.co.kr

한글 배운 할머니들의 시가 노래가 된다

ACC '오지게 재밌는 가시나들' 내달 14일부터 예술극장 극장2

글을 몰라 평생 가슴에 담아뒀던 말들, 뒤늦게 배운 한글로 적어 내려간 시 한 편이 무대 위 노래가 된다.

국립아시아문화전당재단(ACC)은 ACC 초이스 세 번째 작품으로 창작뮤지컬 '오지게 재밌는 가시나들'을 오는 8월 14일부터 16일까지 ACC 예술극장 극장2에서 선보인다.

'오지게 재밌는 가시나들'은 다큐멘터리 영화 '질곡 가시나들'과 에세이 '오지게 재밌게 나이들'을 원작으로 한 작품이다.

한평생 글을 배우지 못한 채 살아온 할머니들이 늦깎이 학생이 돼 한글을 익히고, 시를 쓰며 새로운 세상과 만나는 과정을 유쾌하고 따뜻하게 그려낸다.

작품의 주인공은 문해학교에 다니는 영란·춘삼·인순·분한 할머니다. 이들은 글을 통해 자신의 삶을 들여다보고, 잊고 지냈던 꿈과 설렘을 다시 발견한다. 무대에는 실제 문해학교 어르신들이 쓴 시 20여 편이 뮤지컬 넘버로 재탄생해 관객과 만난다.

이 작품은 한국콘텐츠진흥원 창작뮤지컬 공모전 '글로벌 뮤지컬 라이브 시즌7'과 한국문화예술위원회 '2024 공연예술창작산실 올해의 신작'에 선정되며 작품성을 인정받았다. 지난해



국립아시아문화전당재단은 ACC 초이스 세 번째 작품으로 창작뮤지컬 '오지게 재밌는 가시나들'을 오는 8월 14일부터 16일까지 ACC 예술극장 극장2에서 선보인다. '오지게 재밌는 가시나들' 공연 모습. 사진제공=ACC

초연 이후에는 '제10회 한국뮤지컬어워드'에서 작품상(400석 미만), 연출상, 극본상 등 3개 부문을 수상하며 호평을 받았다.

배움의 기쁨과 나이 들기의 아름다움, 그리고 삶을 기록하는 언어의 힘을 노래하는 작품이다. 화려한 영웅담 대신 평범한 할머니들의 이야기가 무대 위에서 웃음과 눈물, 공감의 노래로 피

어난다. 공연은 8월 14일 오후 7시30분, 15일 오후 3시·7시, 16일 오후 2시에 열린다. 관람료는 R석 6만 5000원, S석 3만 5000원이며 7세 이상 관람 가능하다. 예매는 지난 16일 오전 10시부터 국립아시아문화전당재단 누리집을 통해 진행 중이다. 황해운 기자 nabi@gjdream.com

첼로로 피어난 프랑스 파리 살롱의 선율

첼리스트 오지희 독주회, 21일 광주예술의전당 소극장

파리 살롱의 우아한 선율과 낭만주의 거장들의 깊은 서정이 첼로의 음색으로 되살아난다.

첼리스트 오지희가 오는 21일 오후 4시 광주예술의전당 소극장에서 제5회 독주회 'French Vibes, Romantic Tones'를 갖는다.

이번 공연은 프랑스 근대 음악 특유의 세련된 감성과 낭만주의 음악의 깊은 울림을 한 무대에 담아낸다. 첼로와 피아노, 바이올린이 어우러지는 실내악 무대를 통해 관객들에게 다채로운 음색의 향연을 선사할 예정이다.

프로그램은 가브리엘 포레의 '로망스 Op.69'로 시작한다. 이어 모리스 라벨의 '하바네라 형식의 소품(Piece en Forme de Habanera)'을 통해 프랑스 음악 특유의 우아함과 이국적 정취를 전한다.

아울러 에두아르 말로의 '피아노 삼중주 제1번 단조 Op.7'과 쇼팽의 '첼로 소나타 사단조 Op.65'를 연주한다. 특히 쇼팽의 첼로 소나타는 작곡가 말년의 대표작으로 좁혀 삶의 마지막 순간에 이른 예술적 성숙과 깊은 서정성을 담고 있다. 이번 연주를 할 첼리스트 오지희는 9세에 연주를 시작해 한국·독일 브람스협회 주니어콩쿠르, 호남예술제, 광선대학교 음악콩쿠르 등에서 입상하며 일찍부터 두각을 나타냈다. 이후 오스트리아 빈 시립음악대에서 예비과정부터 석사과정까지 모두 우수한 성적으로 마쳤고, 유럽 각지에서 실내악과 오케스트라 연주 활동을 이어왔다. 귀국 후에는 지휘자 정명훈이 이끄는 아시아필하모닉오케스트라 단원을 역임했으며 광주음악제, 김대중대통령기념음악회 등 다양한 무대에 출연했다. 현재 목포필하모닉오케스트라와 나주빛가람 챔버오케스트라 수석을 맡고 있으며, 스트링 듀오 빈(WIEN), K아트앙상블 멤버로 활동 중이다. 국립아시아문화전당 시민오케스트라 강사로 출강하는 등 후학 양성에 힘쓰고 있다. 이번 공연에는 오스트리아 빈 국립음대 오페라코치 및 가곡반주 최고연주자과정을 졸업한 피아니스트 김민주와 광주여성필하모닉오케스트라 악장 바이올리니스트 박승원이 함께 무대에 오른다. 공연은 사전 예약을 통해 관람할 수 있다. 입장료는 전석 1만원. 정재경 기자 view2018@gwangnam.co.kr

